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최종 결과

□ 공모 개요

-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기간 : '26. 1. 12. ~ 2. 6.
- 공모주제 : 일상에서 목격하는 기상현상, 자연재해, 기후변화 체감 콘텐츠

□ 최종 결과




- 전문가 심사 : 총 39점(사진 29점, 영상 3점, 생성형 AI 7점) 선정
- 국민 심사: 사진 부문 대상 국민투표로 인기상 1점 선정





구분	작품(총 39점)		상훈(부상)
사진 부문	대상 (1)	구름이 빛은 소용돌이<석기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500만원)
	금상 (1)	설중마<강병진>	기상청장(200만원)
	은상 (2)	거친 구름 물결<양연심> 등	기상청장(100만원)
	동상 (3)	봄에 내리는 폭설<이동섭> 등	기상청장(50만원)
	입선 (22)	서리가 내린 날<장완수> 등	- (15만원)
	인기상 (1)	구름이 빛은 소용돌이<석기철>	- (40만원 상당 경품)
영상 부문	특별상 (3)	남극의 렌즈구름. 강력한 블리자드의 전조 현상<김상현> 등	기상청장(20만원)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 부문	특별상 (3)	2025년 유리 속의 날씨 전시회<이강욱> 등	기상청장(15만원)

□ 향후 계획




- 상장·부상품 전달 안내(수상자 개별 연락) : 3월 중

1. 사진 부문




작품(상격) / 작품명 / 작가명	작품설명	촬영일 및 장소
 <p>(대상) 구름이 빛은 소용돌이 / 석기철 작</p>	<p>(사진) 2025년 7월 새벽 여명이 밝아 오는 무렵 설악산에서 포착한 장면으로, 산지에 강하게 부는 바람(최대순간풍속 24.1m/s)에 의해 형성된 렌즈 형태의 구름이 하늘에 펼쳐진 순간을 담았습니다.</p>	<p>2025. 07. 0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p>
 <p>(금상) 설중마 / 강병진 작</p>	<p>(사진) 2023년 1월 말 제주에 폭설이 내린 제주 들판에 추위를 이겨내며 서 있는 제주마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이 나아가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p>	<p>2023. 01. 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p>
 <p>(은상) 거친 구름 물결 / 양연심 작</p>	<p>(사진) 제주시 오등동 보리밭과 한라산을 배경으로 하늘에 펼쳐진 신기한 구름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주변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울퉁불퉁한 형태의 물결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p>	<p>2025. 05. 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p>




작품(상격) / 작품명 / 작가명	작품설명	촬영일 및 장소
 <p>(은상) 두 개의 세계 / 이동섭 작</p>	<p>(사진) 태안군 파도리 바다에서 하늘을 수직으로 가르듯 내려오는 빛과 구름의 경계선을 포착해 한 프레임 안에 담았습니다. 빛이 공기 중의 미세한 입자와 부딪혀 사방으로 퍼지면서 빛의 통로가 생기는 빛내림 현상입니다.</p>	<p>2025. 10. 25. 충청남도 태안군</p>
 <p>(동상) 봄에 내리는 폭설 / 이상운 작</p>	<p>(사진) 강원도 태백의 3월 봄에 내린 폭설 속에서도 출근길에 나선 광부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거센 눈보라와 강풍을 이겨내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을 통해 날씨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표현했습니다.</p>	<p>2025. 03. 2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p>
 <p>(동상) 조업 / 강동근 작</p>	<p>(사진) 서해의 어촌마을 갯벌에서 어업 채취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주민들의 아침 풍경을 담았습니다. 안개로 수백 미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일상을 몽환적인 분위기의 흑백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p>	<p>2024. 06. 06. 충청남도 태안군</p>
 <p>(동상) 강풍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 손석 작</p>	<p>(사진) 강풍경보와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날, 전남 무안 바닷가에서 거센 바람과 함께 몰아치는 눈보라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강풍에 휘날리는 눈발이 빛을 받으며 사방으로 퍼져나가 마치 별이 쏟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p>	<p>2026. 01. 10. 전라남도 무안군</p>

2. 영상 부문

작품(상격) / 작품명 / 작가명	작품설명	촬영일 및 장소
 <p>(특별상) 남극의 렌즈구름. 강력한 블리자드의 전조 현상 / 김상현 작</p>	<p>(영상) 2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서쪽 고원에서 형성된 렌즈구름을 담은 영상입니다. 강한 바람이 남극횡단산맥을 넘으며 공기 파동이 생겨 렌즈구름이 형성되며, 이는 기지에 강풍이나 블리자드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p>	<p>2024. 02. 27. 동남극 테라노바만</p>
 <p>(특별상) 시골 밤하늘 / 최원희 작</p>	<p>(영상) 어릴 적 시골의 밤하늘은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빛공해로 인해 이런 풍경을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p>	<p>2025. 02. 15. ~ 02. 16. 충청북도 보은군</p>
 <p>(특별상) 얼음 아래 파동 / 전지윤 작</p>	<p>(영상) 1월 한강에서 선박이 지나가며 생긴 물결이 얼음 아래로 전달돼 얇은 얼음이 파도처럼 흔들리고 갈라지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정지된 얼음 아래에서 이어지는 물의 움직임이 잠시 드러난 자연의 장면입니다.</p>	<p>2026. 01. 03. 서울특별시 강서구</p>

3. 생성형 인공지능(AI) 부문

작품(상격) / 작품명 / 작가명	작품설명	제작도구
 <p>(특별상) 2025년 유리 속의 날씨 전시회 / 이강욱 작</p>	<p>(영상) '유리 속의 계절'은 2025년 관측된 주요 기상 이변을 AI 기술로 시각화한 영상입니다. 강원 폭설, 대구 우박, 서울 열대야, 군산 폭우, 제주 용오름 등 다섯 가지 극한 기후 사례를 비바리움 디오라마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자연 현상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며 기후변화의 현실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p>	<p>Gemini, Kling, Nano Banana Pro, Suno</p>
 <p>(특별상) 기상 관측 기록: 오늘의 날씨, 미래의 기준 / 조문희 작</p>	<p>(영상) 일상에서 관측된 기상·기후 현상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입니다. 강수 형태, 폭염, 집중호우, 대설 등 다양한 현상을 실제 관측 자료를 분석해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기록이 미래 기후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p>	<p>ChatGPT, Midjourney, capcut, suno, elevenlabs</p>
 <p>(특별상) 만약, 서울의 하늘에서 / 전시안 작</p>	<p>(영상) 서울 한강 하늘에 오로라가 나타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익숙한 도시 풍경 위에 더해진 빛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지구 기후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암시하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현실과 상상이 겹치는 장면을 통해 감탄과 불안이 공존하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p>	<p>ChatGPT, Midjourney, Kling</p>

작품(상격) / 작품명 / 작가명	작품설명	제작도구
 <p>(특별상) 8월 아닌, 12월의 크리스마스 / 이동규 작</p>	<p>(이미지)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고, 광장에 놓인 트리가 더위에 휘어진 모습을 통해 기후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모습은 익숙해진 이상기후와 기후위기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p>	<p>ChatGPT, Gemini, Nano Banana Pro 등</p>
 <p>(특별상) 골든타임의 끝 / 류한석 작</p>	<p>(이미지) 'CLIMATE EMERGENCY'가 새겨진 거대한 모래시계를 통해 기후 위기의 절박함을 시각화한 작품입니다. 녹아내리는 빙하와 위태로운 북극곰, 그리고 불타는 도시와 홍수의 장면을 대비시켜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p>	<p>Gemini, Nano Banana Pro</p>
 <p>(특별상) 마지막 자연설 / 김태정 작</p>	<p>(이미지) 지금은 당연한 계절의 풍경이 미래에는 기술로 보존해야만 볼 수 있는 '유물'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상정한 작품입니다. 인공적인 진열장 속 자연의 아름다움과 차가운 박물관 공간의 대비를 통해, 기후 위기로 우리가 잃어버릴지도 모를 일상의 풍경을 되돌아보게 합니다.</p>	<p>Gemini</p>
 <p>(특별상) 태풍의 눈을 내려다보다 / 조현빈 작</p>	<p>(이미지) 기상위성으로 관측하는 태풍의 눈을 AI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거대한 회전 구름 속 중심에 존재하는 고요한 공간을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극단적인 에너지 속에 나타나는 잠시의 정적을 담았습니다. 폭풍 속 평온은 위기의 시대에도 존재하는 자연의 균형과 회복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p>	<p>ChatGPT, Gemini, Nano-Banana 등</p>